

광주 특급호텔 논란 속 면세점 무산 위기

대선 후보들 건립 반대 공약...신세계 지구단위 계획 중단

상인·정치권 찬반 논쟁에 관광산업 필수 인프라 '빨간불'

19대 대통령선거 유력 후보들 사이에서 광주신세계가 추진하고 있는 특급호텔 건립 찬반 논쟁이 불은면서 덩달아 광주지역 면세점 유치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에초 특급호텔을 건립해 광주신세계의 일부 판매시설을 이전한 뒤 백화점 일부 층에 면세점을 유치하려고 했지만 정치권에서 특급호텔 건립 반대를 공약으로 내걸면서 면세점 유치마저 물 건너 가게 됐다.

면세점은 광주지역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필수 시설이지만 정작 중요한 대통령 선거 국면에 복합시설이 포함된 특급호텔 건립 반대 여론이 일면서 면세점 건립 논의는 아예 사라져버렸다.

최근 신세계 측이 광주시에 특급호텔 건립과 관련, 지구단위계획 중단 공문을 보내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 아예 신세계

가 특급호텔 건립에서 손을 뗄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2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시가 신세계 측의 특급호텔 복합시설 지구단위 계획에 대해 주차장 추가확보와 지하차도 건립 등의 계획 보안을 요구했는데 최근 신세계 측이 지구단위계획을 중단해 줄 것을 요구했다.

지구단위계획의 기한 내에 구체적으로 계획을 보완하기 어렵고, 대통령 선거 결과에 따라 계획 자체가 무산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신세계 측이 지구단위계획을 아예 중단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앞서 특급호텔 관련, 지역 일부 상인들이 반발하고 나섰고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대기업이 운영하는 복합쇼핑몰 등에 대해 대규모 점포에 포함시켜 규제하고 입지를 제한한다"는 공약을 내걸면서

이 문제가 정치 이슈가 되기도 했다.

이에 신세계 측이 부담을 느껴 지구단위 계획을 중단했고, 선거 결과에 따라 재추진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문제는 이런 논쟁 과정에서 정작 중요한 면세점 유치가 빠져 있다는 점이다. 후보들이 앞다퉀 신심성 지역 공약을 내놓는 선거 기간에 면세점 유치라는 지역 현안은 사라지고, 특급호텔 건립 문제만 부각되면서 광주에는 남은 게 없게 됐다. 경우에 따라서는 면세점도 특급호텔도 모두 놓치게 된 셈이다.

이 과정에 광주시도 입장 표명을 늦추면서 상인 대 상인, 정치권 등으로 나눠 특급호텔 건립 찬반 논쟁만 계속해 왔다.

허가를 통해 면세점은 광주의 다른 공간에도 들어설 수 있지만 국내에서 면세점을 운영하는 기업들에게 터미널 인근 유통인구가 많은 현 광주신세계백화점 부지는 가장 매력적이기 때문에 특급호텔 건립과 면세점 유치는 밀접한 관계를 맺

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면세점은 관광 산업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프라다. 최근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여파로 사들해지기는 했지만 중국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면세점은 필수이며, 광주·전남이 중국 관광객수를 늘리지 못했던 이유 중 하나로 면세점을 유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역 관광업계 한 관계자는 "술을 보지 못하고 나무만 본다는 말처럼 특급호텔 논란에 정작 중요한 면세점 문제는 사라져버렸다"면서 "광주가 정치권에 요구해야 할 것은 특급호텔을 건립하느냐 마느냐도 중요하지만 '면세점을 허가해 줄 것 인자'를 선거 기간에 못을 박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광주신세계는 인근 이마트와 모델 하우스 부지 등에 연면적 2만9100여㎡(8800여평) 규모의 특급호텔과 11만6200여㎡(3만5200여평)의 백화점을 포함한 14만5000여㎡(4만4000여평) 규모의 건물이 건립할 계획이었다. /오광록기자 kroh@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219.67 (+14.23) ↑ 금리 (국고채 3년) 1.69% (+0.02)

↓ 코스닥 626.43 (-1.81) ↓ 환율 (USD) 1130.50원 (-7.40)

코스피 2219.67...또 연중 최고

코스피는 2일 삼성전자의 사상 최고가 행진과 외국인인 매수세에 힘입어 장중 한때 2.230선 바로 아래까지 치솟기도 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13.23포인트(0.65%) 오른 2,219.67로 장을 마감했다. 이는 2011년 5월 2일 작성한 역대 최고치(2,228.9) 이후 약 6년 만에 세워진 역

대 증가 2위 기록이다. 지수는 전장보다 8.17포인트(0.37%) 오른 2,213.61로 출발했다. 오전 상승 폭을 확대하면서 한때 2,229.74까지 올라 장중 역대 최고 기록(2,231.47)까지 났었다.

이후 상승세가 한풀 꺾였지만, 이날 장중 최고치도 장중 기준으로 역시 역대 2위 기록이다. /연합뉴스



'알바 청춘' 위로하는 보해

알바몬 제휴...응원 메시지 앞치마·화장품 등 배포

보해양조(대표 임지선)는 잡코리아가 운영하는 국내 최대 아르바이트 포털 사이트 '알바몬'과 손잡고 아르바이트생들의 캠페인에 관심을 기울이는 '꿀맛 나는 캠페인'을 진행한다.

'꿀맛 나는 캠페인'은 아르바이트생의 노고를 위로하고 그들의 꿈과 희망을 응원하는 공동 캠페인이다.

보해양조는 아르바이트생의 애환에 공감하고, 그들이 흘리는 땀에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고자 알바몬과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다.

보해와 알바몬은 두 회사의 모델인 걸스데이 '해리'를 활용해 '꿀소주는 알바주, 꿀알바는 알바몬'이라는 메시지가 담긴 앞치마와 포스터 등을 제작해 광

주·전남지역 대학가와 주요 상권에 배포할 계획이다. 또한 핸드크림과 물티슈, 마스크팩 등 응원품5종 세트도 함께 증정한다. '힘들지, 이걸로 다 지워!', '꿀소주 마시고 꿀피부 만드자'와 같은 재미있는 문구가 담긴 물품들은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소소한 힐링을 선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알바주는 '달달하게 흔들흔들 알바주' 캠페인의 일환으로 청춘 마케팅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청춘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자 개구우먼 박나래와 대학가에서 '소셜 드링크카' 토크콘서트를 진행하고 광주·전남 지역 대학생들 홍보대사로 위촉하는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 하고 있다. /최재호기자 lion@

한전 하노버 국제산업박람회 참가 1000억원대 수출상담

한국전력(사장 조환익)이 국내 중소기업과 함께 세계 최대 규모의 '2017 하노버 국제 산업박람회'에 참가해 1000억원 규모의 수출 상담 실적을 냈다.

한전은 지난달 24~28일 독일 하노버에서 열린 박람회에서 한국전기산업진흥회와 공동으로 234㎡ 규모의 전시관을 구성해 신성산전 등 19개 협력사 제품을 전시했다. 행사기간 동안 한전은 인도, 브라질, 베트남, 레바논 등 전 세계 바이어 700명을 대상으로 모두 1억 달러(약 1133억원)의 수출 상담 실적을 기록했다. 또한 신기술 컨퍼런스 참석을 통해 선진기술동향을 벤치마킹 하는 등 빛가람 에너지밸리의 에너지신사업 역량 강화와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독일 하노버 산업박람회는 지난 1947년 처음 개최된 이후 세계 최대 규모와 최고 인지도를 가진 국제 산업 박람회다. 한전은 올해 다섯 번째로 박람회에 참가했



으며 올해 73개국 총 6562개사(대한민국 115개사)가 참가하고 25만명이 방문해 박람회 사상 최대규모로 개최됐다. 한전은 이번 하노버 박람회에서 수출

상담한 해외 유망 바이어들을 대상으로 올해 11월 개최하는 빛가람전력기술엑스포와 10월 개최하는 한국전기산업대전(SIEF) 행사에 초청하는 등 지속적인 수

출 교류 확대를 추진한다. 특히 높은 브랜드 인지도를 활용하여 협력사들이 해외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지원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최재호기자 lion@

혼술·홈술족 증가...대형마트 주류 매출 절반이 맥주

대형마트 주류 매출에서 맥주가 차지하는 비중이 처음으로 50%를 넘었다.

최근 음주문화가 급격히 변화하면서 폭음이나 독주(毒酒)를 기피하는 풍조가 확산하는 대신 1~2인 가구 증가의 영향으로 집에서 혼자 맥주를 즐기는 이른바 혼술·홈술족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2일 이마트에 따르면 전체 주류 매출에

서 맥주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48.2%였으나 올해 3월 51.1%로 처음으로 50%를 넘어섰고, 4월에는 55.0%까지 늘어났다.

맥주 매출이 이처럼 호조를 보이는 것은 최근 고속 성장을 거듭하는 수입맥주의 영향이 크다고 이마트는 설명했다.

지난해 이마트에서 수입맥주 매출은 전년 대비 24.3% 늘었고, 올해 3월 이마트

의 수입맥주 매출은 88억원으로 작년 동기의 62억원보다 41.9% 급증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맥주 수입액은 2011년 5844만 달러, 2012년 7359만 달러, 2013년 8966만 달러, 2014년 1억2268만 달러, 2015년 1억4168만 달러 등으로 해마다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수입량도 2015년 17만9199kg로 전년보다 43% 증가했다. 지난해 상반기

에는 전년 동기보다 34.5% 증가한 9만5858t으로 반기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지난해 9월말 기준 국내 1인 가구 수는 739만 가구로, 전체 2121만 가구의 34.8%에 달했다. 2인 가구(21.3%)까지 더하면 전체의 56.1%(1191만 가구)를 차지한다.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가족과 저녁을 함께하는 문화가 확산하면서 맥주를 즐기는 사람들이 늘어난 것도 매출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기아 전기차 '쏘울 EV' 1회 충전 180km 주행

기아자동차는 2일 '2018 쏘울 EV'가 정부 연비인증 절차를 통해 1회 충전 주행거리로 180km를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도심 기준으로는 202km, 고속도로 기준으로는 152km 수준으로 판정됐다.

2018 쏘울 EV는 최고출력 81.4kW, 최대토크 285Nm의 고성능 모터와 30kWh의 고전압 배터리를 장착한 기아차의 대표 전기차다.

급속충전 시 23~33분(100kW/50

kW 급속충전 기준), 완속충전 시 5시간 40분에 충전이 가능하다.

가격은 4280만원이며 공모를 통해 보조금 혜택을 받으면 1680만~2880만원 수준으로 차량을 구입할 수 있다.

국고 보조금은 1400만원, 지자체 보조금은 최대 1200만원이 지급된다.

쏘울 EV는 지난해 글로벌 판매 2만 1000대를 돌파하며 국산 전기차 중 최고 판매고를 기록했다. /김대성기자 bigkim@

미르샘메디컬센터 | 임대분양
나주 대표 랜드마크형빌딩

나주의 중심상장부에 건립된, 최초 메디컬센터 5월 입주임박!
시외버스터미널~남고문을 잇는 중심상권에 위치한 최고의 입지!

1층 767㎡ | 약국입점확정, 커피전문점, 편의점, 이동통신대리점, 브랜드의류, 죽전문점, 대형전시장
2~5층 794㎡ | 이비인후과, 내과, 피부과, 정형외과, 통증의학과, 신경외과, 가정의학과 등 전문병원 환경
6층 743㎡ | 전문병원원 및 피부 레스토랑 등 대형연회장 환경

친철상담 | 첨단길잡이 공인중개사사무소 (광산구, 대표 이현민)
062-972-8845 · 010-3635-5800

나주혁신 빛가람 로데오 포장마차 사업주 모집 안내

◆사 입 지 | 나주시 빛가람동 26번지 상업 6블럭 로데오 거리 일원
◆지 격 | 소자본으로 요식업 창업에 관심이 있는 모든 분
◆모집업종
- 육 류 : 소고기/ 돼지고기/ 양고기 관련 요식업종 (5개 업소)
- 가금류 : 닭고기/ 오리고기 관련 요식업종 (5개 업소)
- 해물류 : 회, 생선구이, 조개구이 등 관련 요식업종 (5개 업소)
- 주 류 : 수제맥주, 와인 등 관련 요식업종 (5개 업소)
- 분식류 : 제과, 피자, 햄버거, 아이스크림 등 관련 요식업종 (5개 업소)
- 동남아음식 : 베트남, 일본, 중국 등 관련 요식업종 (5개 업소)
*유망 프랜차이즈 입점 불가
◆점 포 수 : 29점포
◆임대조건
- 보증금 : 1,000만원
- 월 세 : 매출에 따른 수수료 매장 or 월 고정 임대료 중 선택 가능
◆입점혜택
- 인테리어 비용의 최소화
- 주 2회 거리공연 (기념일 대규모 행사)
- 이간 배달주문 콜센터 운영 (18:00~22:00)
- 지속적인 광고 홍보 / TV 및 라디오 광고 예정
- 시장님들 및 고객 서비스에만 신경 쓸 수 있도록 최상의 영업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나주혁신도시 유흥의 중심"
빛가람동 상업6블럭 로데오거리의
「빛가람 로데오 포차」와 함께 할 사업주를 모집합니다.

오픈 예정일 : **2017년 5월**
- 선착순 모집으로 조기 마감 될 수 있습니다 -

문의 | 시민법인 빛가람 상가 발전위원회
☎ 061)333-5001
나주시 배벧1길 26-1 ING타워 101호